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5.(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담당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	**담당자**	박대종 전문위원(044-300-7410)
			김현정 주무관 (044-300-7414)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수정가결

- 제110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134억 3,954만원 규모 예산안 심사 -
-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심사했다.

202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억 702만원(3.9%) 증가한 134억 3,954만 원 규모로,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정 홍보 관련 등 4개 사업에서 5,45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 관련 등 9개 사업에 5,45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청사 환경 및 전산 인프라 개선 ▲생성형 AI 활용 확대 ▲의정홍보 방식 다변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호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과 입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 구독과 언론 스크랩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라디오 방송 등 시민 접근성과 전달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유인호 위원은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2년 단위의 평가 주기를 재검토하고, 지역 연구 기관과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 절감과 입법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준 위원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전산 인프라 개선과 장애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수소 버스 구매 비용 절감 방안과 의원·직원 간 국외 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연희 위원은 내년도 미디어팀 신설에 맞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 지원 대상이 의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금년도 지원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 청사 내 협소한 대기실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 의회 버스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의정연수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토론회와 간담회는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의정활동”이라며, 관련 지원 예산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